

5·18광주민중항쟁 27년이 지났건만 진실은 아직도...

5·18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27년이나 지났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5·18의 실제적 진실을 모르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는 5·18을 '폭동' 또는 '사태'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5·18에 대한 인식도 거의 낙제 수준을 연한 정도였다.

국민 17% "5·18은 폭동·사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은 5·18 민중항쟁을 여전히 '폭동'이나 '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5·18 기념재단이 5·18 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나우엔퓨처'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18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5·18을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2%는 '폭동', 6.7%는 '사태'라고 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16.9%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10명 중

2명 정도가 '폭동'이나 '사태' 등 5·18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5·18의 전국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8이 한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16.5%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5·18이 국가기념일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68.0%가 '모른다'고 했고 '5·18묘지가 국립 5·18 민주묘지로 승격된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66.7%가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83.5%는 '우리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다', 55.3%는

'민주화 운동을 기념 계승해야 한다' 등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밖에 5·18과 관련, 미흡한 분야는 ▲책임자 처벌(28.7%) ▲진상 규명(27.5%) ▲피해자에 대한 배상(21.0%) ▲명예회복(12.7%) ▲기념사업(2.5%) 등의 순이었다. 5·18 민중항쟁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인권 69.7% ▲민주주의 57.7% ▲평화 51.0% ▲정의 33.7%라고 응답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5·18 정신이 필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턴기자 ahj@kwangju.co.kr

대학생 5·18강좌 평균학점 'C'

광주지역 대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5·18민중항쟁의 배경이나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5·18 관련 교양선택 강좌를 개설·운영 중인 광주 모 대학이 지난 4월 중간고사를 치른 결과, 1~2학년이 대다수인 수강생 30명의 평균 성적은 70점(C학점)에 그쳤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1980년 봄의 정치적 상황 ▲5·18 민중항쟁에서 등장한 (시민) 공동체 ▲5·

18과 미국의 책임론 ▲5·18과 4·19의 차이점 등 4개 문항 중 3개 문항을 선택해 답하는 것이었다. 이 학교 1학년 김모(여·19)양은 '5·18과 미국의 책임론'에 대한 문제에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데 한국 민주주의 항쟁을 외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2학년 박모(20)씨는 '5·18 민중항쟁에서 등장한 공동체'를 묻는 문제에서 '시민들이 합심해 군인들을 몰아냈으며, 시민들이 광주

를 사수하는 동안 사건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서 공동체를 이룩했다고 본다'며 대충 답해 C학점을 얻었다. 답안을 거의 쓰지 못한 학생들 또한 전체 수강생 30명 중 10여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중항쟁이 언제 일어났나'라는 교수의 질문에 손을 든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고, 80년 5·18을 상징화한 대표적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15% 정도만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5·18 추모 태권체조 '넋'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15일 오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5·18 민중항쟁 추모기념 시장기 남녀 중·고전국태권도대회 개막식 식후 행사에서 5·18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태권체조 '넋' 중 수안(몸퍼서 공중 뒤돌기)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시 공무원시험 광주·전남 수험생 1만86명 대거 상경

오는 7월8일 예정인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광주·전남에서 1만여 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9급 1천732명을 선발하는 행정·기술·연구 지도직 시험에 예년과 달리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도 '서울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4월30일~5월4일) 결과, 전국적으로 14만 여명의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냈으며 이 중 광주지역은 6천950명, 전남은 3천136명 등 총 1만866명이 접수했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수험생이 서울로 '원정'을 가게 되자 광주지역 13개 고시학원은 자체 수송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시험 전날인 7월 7일을 앞두고 광주발 서울행 열차 17편(KTX·새마을·무궁화호)의 예약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golee@

한나라, 룰 확정...경선 레이스 돌입 李-朴, 검증공방 격돌 예고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8월-23만명' 경선 룰을 사실상 확정짓고 본격적인 경선체제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4면> 새 경선룰은 오는 21일 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번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해 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곧바로 경선관리위원회 및 검증위원회 구성 등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도 경선관리위원회 및 검증위원회를 구성 등 '경선모드'로 전환했다. 양측은 이날 말 검증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본격적인 검증공방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경선 룰 이상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부적인 '게임의 룰'을 확립할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문제에서부터 경선 룰 수정에 따라 확대된 선거인단 구성 방식, 여론조사 기법, 당직 인선, 사직기구장 정비 등 현안 하

나하나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제2, 제3의 위기가 언제든 재연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8월-23만명 경선 룰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해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새 경선 룰은 대선일 120일(8월21일) 이전에 유권자 총수의 0.5% (여론조사 반영분 포함해 23만1천652명) 규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강제집 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으로, 당 혁신안에 따른 현행 경선 룰 '6월-4만명' 안에 비해 경선시기는 두 달 가량 늦추고 선거인단은 6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새 경선 룰에는 강 대표 중재안 가운데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로 늘리고 순회경선 대신 하루에 동시투표를 실시해 국민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최대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하한선 보장' 조항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격 양보로 막판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6월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경선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과 대의원 구성원 자격 가운데 중앙당 후원회 폐지로 사문화된 '중앙당 후원회 운영위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처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경선 룰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인 '2007 정책비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광주에서는 다음달 8일 교육·복지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양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이나영의 멜라닌 지수 **127**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 고집을 꺾다

끈질긴 멜라닌 흔적에 아이오펜 화이트젠 RXC 인텐티브 에센스

끈질기게 올라오는 기미·잡티, 멜라닌의 방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기미, 잡티는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멜라닌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걸러내지 못하면 멜라닌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큰 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겉에서 지워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므로 피부 속을 바꿔주는 딥아이팅이 중요하다.

멜라닌 요요현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화이트젠RXC 처방
 보다 근원적인 화이트닝을 위해 아이오펜이 새롭게 개발한 화이트젠RXC 처방은 피부 본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백 효능 성분을 캡슐에 담아 피부 속 깊숙한 멜라닌까지 신속하게 전달, 멜라닌의 과다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것. 강력한 햇빛에서도 하얗고 생기있는 빛을 유지하는 꽃다지 씨앗 추출물은 식물성분으로서 맑고 환한 효과를 도와준다. 동시에 강화된 수분 공급력은 착색함을 밀어내고 투명함과 화사함을 채워준다.

*멜라닌 지수 (Melanin Index)란?
 엑시미터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멜라닌 정도를 측정할 수지. 낮을수록 하얀피부를 뜻함.

멜라닌 지수 정말 낮아질까?
 그녀들의 화이트닝 도전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12명의 도전자가 끝낸 멜라닌 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펜 피부과학 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젠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www.iope.co.kr

IOPE